

하나됨과 나눔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나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부활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금년 사순절 연속기도는 고난주간, 4월 3일(월)-8일(토) 한 주간만 진행합니다. 미리 시간을 조절하여 준비해 주십시오.
- 공동체학교 전체 학부모교육이 오후 3시에 모입니다. 교육 후에 모이는 후원이사회 임시회의(총회)에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를 위한 목적헌금은 다음 주일까지 합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무림사랑방 ( 감사 )

강단을 꽃으로 : 이지성 목사 · 저경하 사모 가정 ( 감사 )

김성기 · 김예지 · 김이레 청년 ( 감사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12 호

2023년 3월 19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대안학교 시작점에서

### 원조집

‘원조’.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단어이다. 때로는 이 단어를 독차지하기 위해 법정 소송을 벌이기도 한다. 사람들이 ‘원조’라는 단어에 욕심을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개척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아닌가 싶다.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원조’라는 단어의 소유가 이익과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 대안학교의 시작점

한국의 대안학교 시작은 1958년 4월 23일 문을 연 ‘풀무고등공민학교’로 봐야 한다. 오산학교 출신의 설립자 이찬갑 선생은 ‘교육, 기독교, 농촌’에 의한 민족구원의 뜻으로 이 학교를 시작했다. 국가 주도의 교육이 아닌 민간 주도의 자율적 교육 운동이라는 점은 훗날 대안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 두 가지 주장

하나의 주장은 대안학교의 시작점을 1997년 산청 간디학교로 본다. 다른 주장은 1992년 꾸러기학교(사랑방공동체)를 대안학교의 시작점으로 본다. 이는 2007년 교육부가 발간한 ‘대안교육 백서(37쪽)’와 사랑방공동체(정태일 목사)의 역사 기록을 근거로 하고 있다.

### ‘장화 신고 국회 가요’

꾸러기 학교는 네 살부터 일곱 살까지 유치원 과정의 교육 공동체로 12명의 아이들로 1992년 4월 정식 개교를 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장화 신고 국회 가요’』(이월영, 2000. 기

독신문사)에 잘 나타나 있다.

꾸러기학교는 발전을 계속하여 2002년 초등과정 대안학교 ‘어린이학교’를 개교하는 밑받침이 되었다. 최초의 초등대안학교인 2001년에 개교한 ‘산어린이학교’보다 1년 늦게 시작하였지만 역시 한국 대안교육 운동의 선두주자임에 틀림이 없다.

사랑방공동체는 한국의 공동체 운동과 대안교육에 기독교와 비기독교 진영을 넘어서 혁신적인 교육과정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그럼에도 대안교육 운동사에서 평가는 아주 미미하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대안교육운동과 연관된 글을 쓰는 사람들이 한쪽 진영에 편중되어 기독교계의 운동사를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우리는 대안학교의 시작점을 사랑방공동체로 분명히 해야 한다. 앞으로는 우리 기독교대안교육의 정당성이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새해가 시작되었다. 앞으로 우리의 방향은 ‘기독교 대안교육 운동을 통한 한국교육 개혁에 기여’로 갈 것이다. 올해는 그 원년이다. ‘시작점’에서 옷깃을 여밀 때이다.

차영희 사무국장(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 "대안교육, 잇다" 7호 중에 발췌한 글입니다. "대안교육, 잇다"는 한국 기독교대안학 교연맹에서 매월 발행되는 온라인 매거진으로 기독교대안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독교대안학교 구성원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장입니다.

생활공동체 디아코니아사랑방 정다운 전도사

## 한주간의 말씀

“ 그들은 배를 물에 던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

<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365, 521 / 3 27

기도 : 이용신 장로

성경 : 열왕기 상 13장

제목 :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심판을 예고하시다

1. 내용: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잘못을 규탄하다. (What)

<문단구분>

1절~10절 뱀엘 제단 규탄

11절~32절 늙은 예언자와 하나님의 사람

33절~34절 여로보암 가문의 최후

2. 의미: 사람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 (Why)

1) 하나님께서 뱀엘 제단을 규탄하셨다.

2) 선의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

3)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3. 적용: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자. (How)

1)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2)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하자.

3) 올바른 질서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엄마와 딸의 여행

월요일부터 엄마랑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어요. 엄마는 아주 오래전에 부산에 들른 적이 있는데 그때 제대로 구경하지 못해서 아쉬웠다는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또 KTX도 한번 타보고 싶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봄이 오면 엄마랑 KTX 타고 부산으로 여행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엄마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먼저 찾아왔어요. 엄마의 모든 행동이 급격히 느려졌고, 몸이 경직되어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졌어요. 병원에 모시고 가니, 파킨슨병 증세인 것 같다고 해서 정밀검사를 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는 엄마랑 부산 여행을 다녀오고 싶었어요.

엄마가 타보고 싶어 했던 KTX를 탔고, 국제시장에서 엄마 맘에 쏙 드는 모자와 가방도 샀고, 호떡이랑 떡볶이를 사 먹으며 시장 구경을 실컷 했지요. 해상 케이블카도 타고, 해변열차도 탔어요. 여행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엄마랑 특별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보수동 책방골목에서 '인생 사진'이라 할 만한 예쁜 사진을 찍었어요. 근육이 경직된 탓인지 어딘가 표정이 부자연스러웠던 엄마가 그 사진을 찍을 때는 예전처럼 아주 활짝 웃으셨지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여행하면서 보니 엄마가 찍어준 사진들은 모두 균형이 맞지 않았지요. 엄마가 제 사진을 찍어 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파킨슨병을 앓으면서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게 3년 전 일인데, 그동안 몹시도 힘들었던 엄마인데, 관계가 다 끊어졌던 엄마인데, 그때 얻은 우울증을 극복하고 같이 커피 마시고 밥 먹을 친구들을 이제야 사귀기 시작했는데, 엄마가 아버지와 똑같이 그 힘든 병에 걸리다니…….

'하나님 아버지, 엄마가 병든 건 어쩔 수 없지만, 엄마가 친구들과 같이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웃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그 행복한 시간을 조금 더 누릴 수 있게 허락해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3월 17일, 금요일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엄마는 파킨슨병에 걸리지 않았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봄날에 저는 또 엄마랑 다음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엄마와 딸의 추억을 더 쌓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감사합니다!!!

사역공동체 이재신 집사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히브리서 4 : 14-16 인도자  
39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이사야 57 : 15 인도자  
375, 93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누가복음 5 : 1-11 설교자  
148 사랑방  
“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 정재훈 목사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302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주님의 사랑이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박동인 윤경옥/ 봉헌위원 : 차현주/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저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  
저희 형편을 헤아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손수 보이신 겸손의 본을 따라서  
저희도 먼저 찾아가는 이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 공동기도문

###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게네사렛 호숫가로 오심.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 무리를 가르치시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혀서 두 배에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놀라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하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 세상의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살고 있는 일상의 삶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특별한 것 없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려고 불러 주셨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베드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상황이나 형편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인가를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진리라는 것을 발견한 베드로는 그 즉시로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형편과 상황을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합시다. 다른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임진숙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월요일에 새로 다섯살 xㅇ이가 꾸러기에 오기 시작해서 꾸러기 여덟 명이 함께 지냅니다.

첫 나들이로 꾸러기들이 산길을 걸어 무림2리 마을까지 다녀왔습니다. 길에서 막 올라온 썩들을 발견한 xㅇ이가 썩을 밟을까 조심하느라 어렵다고 합니다. 마음이 예쁜 꾸러기입니다.

마을로 나가는 길목에서 다음에 마을구경을 하는 날 이곳에 산길로 왔던 것을 떠올리려 일부러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그 사이에 꾸러기들을 발견한 이종옥 집사님께서 요구르트를 나누어주셔서 인사를 드리고 잘 마시고 왔습니다.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이만~큼 재미있어요." 자연예배당 안에 매단 타이어그네를 타고 난 ㅇㅇ이가 한 말입니다. 몇 번 더 타더니 그네를 밀어주는 이어람 선생님의 노래에 맞춰 순서를 기다리던 ㅇㅇ이가 흥에 겨워 춤을 춥니다. 그 춤이 참 사랑스러워 절로 웃음이 나고 춤을 추는 ㅇㅇ이의 표정이 너무 귀여워 모두들 뒤로 넘어갈 듯 웃어버렸습니다.

ㅇㅇ이는 처음에는 끈을 꼭 잡고 두 다리로 타이어 위에서 몸을 지탱하는 게 익숙치 않아 좀 무서워했지만 그래도 다시 타본다고 줄을 서서 기다리더니 두어번 타보고는 재미있다고 신이 났습니다.

금요일은 어린 꾸러기들이 지쳐서 예민해지고 갈등이 생기기 쉬운 날입니다. 그 오후에 자연예배당에 매단 그네가 새로운 즐거움을 선물 해주어 모두들 신나게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 교사 : 정승희 >

### 어린이학교

3월 13일(월) ~ 15일(수) 까지 개강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충북 옥천과 세종에 다녀왔습니다.

월요일에 3대의 스타렉스에 반별로 나눠 타고 출발했습니다. 죽암 휴게소에서 식사를 내려서 고르는게 대부분 라면이었습니다. 집에서

못먹는거라며... 식사후 달려 옥천자연 휴양림에 도착해서 가장 쉬운 길(?)을 골라서 산책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로 맛난 불고기와 채소

배움과 가르침

를 싸주셔서 아이들이 넘 행복했습니다.

화요일엔 향토전시관에서 옛날 선조들의 생활과 문화를 체험 했고, 전통문화 체험관에서 반대향 전통놀이를 했습니다. 굴렁쇠, 투호, 제기차기, 지게지기 등 재미난 릴레이 게임을 했는데 일등팀에게는 상이 없고, 꼴등하는 팀에게 주리틀기를 해서 웃음을 안겨 주었습니다. 저녁으로 묵갈국수를 맛나게 먹고 숙소로와 전체 피드백을 했습니다.

수요일엔 집에 가는게 아쉬워 아침 일찍 일어나 놀이터에서 짚라인과 그네를 타며 재미나게 놀고, 짐을 챙겨 옥천 5일장에 반별로 다니며 맛난 것도 먹고, 올라오며 세종시에 있는 시립 도서관에서 아이들은 재미난 책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요일에는 회장단을 뽑는 선거를 했습니다. 회장엔 최시현, 총무엔 강현우, 서기엔 최본 어린이가 뽑혔습니다. 하교 후에 회장단 리더십 훈련이 밤늦게까지 있었는데 한 학기동안 어린이학교를 위해서 배운 것처럼 서로 도우며 서로 배려해 해주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교사 : 이현숙 >

### 멋쟁이학교

꽃 피를 샘내는 추위, 꽃샘추위에 멈칫하다가도 곧 반짝이는 햇살에 완연한 봄을 더 기대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 구성된 학생회가 첫 자치회를 열어 한 학기 동안 개인이 담당할 청소 구역, 식사 당번, 부서 등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라고 생활 표어도 정하며, 새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짐했습니다.

열린 수업은 멋쟁이학교의 유일한 공식 시험인 <삼정 생활 시험>과 각 학년의 단합력을 보여주는 <새천년 건강 체조 경연 대회>로 진행되었습니다. 학년별로 맞춰 입은 옷과 절도 있게 맞아떨어지는 동작들, 중간중간 심사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흔든 특별 퍼포먼스까지. 결과보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얻은 것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사랑방공동체 학교 전체 학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 후에는 사랑방공동체 학교 후원회 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장성아 >

## 함께해서 좋아요

저희 가정은 2005년 8월부터 2015년 월까지 10년 동안 공동체에 살고 중국에 갔다가 8년 후 다시 공동체에 찾아왔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참 꿈 같습니다. 거의 20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요즘 늘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언제 또 가세요?”라는 것입니다. “아직 갈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상대방이 너무 기뻐서 저를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신 분도 계십니다. 저를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랑을 무지 많이 받았고 같이 생활 하면서 많이 배웠고 몸에 밴 것도 참 많습니다. 18년 전 아이들이 어리고 학업도 힘들어서 섬긴 것 없이 섬김을 받기만 했습니다. 다시 와서 열심히 섬겨야지 굳게 결심 했지만, 오히려 듣는 말이 “선생님 함께 있어서 참 좋아요”입니다. 그래요! 함께 하고 싶어서 다시 왔습니다. 일부러 무엇을 하는 것보다 그냥 함께 있는 자체가 천국 같아서요.

코로나 3년. 감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유를 잃고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하는 9교시 온라인 수업을 거절하고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3년 동안 언어만 공부했습니다. 이런 중에 10월에 벗어날 마음이 생겨서 남편과 상의한 후에 다시 공동체에 돌아올 계획을 세웠지요. 여권 신청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방 식구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다시 오게 되었다고 해야 남편이 더 마음 놓고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더 깊고 선한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교회가 좋을 때도 있지만 가장 어려울 때 같이 십자기를 지고 천국에 가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겠지만, 함께 손을 잡고 가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공동체에 돌아온 저희를 맞이해주신 하나님과 사랑방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생활공동체 저경하 사모

##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장영미 전도사

찬 송 : 84, 96, 315

성 경 : 베드로전서 1: 3-9

말 씬 :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갖게 하신 예수님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 1)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평화롭게 종결되어서 더 이상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고, 국제 정세가 안정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동광원>
  - 1) 동광원 언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주시도록
  - 2) 복음 공동체의 본질과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 3) 해외 선교 및 다문화 공동체 지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 1) 어린이학교 개강 여행이 오늘 마무리되는데 무리 없이 잘 진행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 2) 환절기로 인해 감기로 고생하시는 식구들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 < 생활공동체 소식 >

공동체 마당에 산수유 나무의 꽃봉오리가 터지니 샘을 내는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입김이 나올 정도로 기온이 떨어져 두꺼운 외투를 잘 챙겨입어야 했습니다. 환절기에 감기에 걸린 공동체 식구들이 많아서 걱정이 많았지만 주 후반에 들어 호전되는 모습들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월요일에는 독일에서 울리안 청년이 다시 공동체를 장기로 방문하게 되어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나도 어제 함께한 사람처럼 친근한 것을 보니 함께 산 시간의 힘이 참 놀랍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손님들이 사랑방을 찾아주리라 기대합니다.

< 장영미 전도사 >